이부섭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공업화학회나 대학교 등에 후학들을 위하여 많은 기부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듣기 전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기업을 잘 운영해 오셔서 그런 기부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했었는데 남들은 한번 당해도 헤어나기 어려울 여러 가지 난관, 즉 화재, 부도, 그리고 배신 등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딛으시고 오늘 날 동진세미켐을 세계적인 부품소재 회사로 키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 패널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제가 한밭대학교 첨단화학소재지역혁신센터, 즉 RIC 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화학소재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제품개발 시에 노광장비가 대당 7000만 달러 씩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빌려서 실험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센터는 화학 반응기로 이루어진 Pilot plant와 분석장비를 구비하고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4대 전략산업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부품소재이고 대전부품소재클러스터에는 전자재료, 정밀화학, 에너지환경 분야에 140여 개 기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 사장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참 '기업인들이 애국자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아주 열심히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회장님께서 성공하신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탁월하신 통찰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포 고분자에서 LCD로, 또 다시 Solar sell로 미래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통찰력이야 말로 CEO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제품혁신에 대한 열정이 되겠지요. 발포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Hydrazine 공정에서 Urea 공정으로, 다시 Biuret 공정의 개발이 그 예가 되겠지요.

10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부품소재 분야가 한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로 성장을 하였으며 더 중요한 것이 고용효과인데 2001-2008년까지 완제품 산업에서는 9만명의 고용이 준 반면에 부품소재분야에서는 7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무역 흑자가 404억 달러인데 부품소재쪽만 놓고 보면 51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보다도 108억 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핵심 분야에서 일본에 6년 뒤지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에서의 범용 소재는 세계 5위 수준이나 첨단 소재는 선진국의 기술 및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KIST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나노소재분야 기술력은 미국과 일본의 69% 수준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소재 쪽을 놓고 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체 부품소재 수출은 1693억 달러인데 이 중 소재 쪽은 516억 달러로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대일 무역역조도 매우 심각해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무역역조는 2000년도 117억 달러에서 2009년도에는 209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내세울 만한 대표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자 재료 분야에서만 보아도 미국의 3M은 프리즘시트, 일본의 후지는 편광판 소재, 스미토모는 IC 기판 소재, 독일의 Merck는 액정 원료 분야에서 95%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독과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재 쪽은 개발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커서 기업들이 개발을 기피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안주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듀폰도 나일론을 개발하다가 거의 망할 뻔 했다지 않습니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 대전 지역은 부품소재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역은 첨단시설과 장비의 활용이 편리하며 동일 분야의 산학연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고급인력도 풍부합니다. 저는 대전지역의 전자소재 분야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 들 중에서도 제2, 제3의 이부섭 회장님이 나오실 걸로 확신합니다.

어제국가 R&D기획단이 5대 미래 선도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까지 7000억을 투자해서 세계를 선도하거나 선점이 가능한 5가지 과제입니다. 성공하면 104조원의 직접 매출과 500조원의 간접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대면적 박막태양전지입니다. 현재 태양전지는 유리 기판 위에 얇은 막형태의 전지를 붙이는 박막형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낮은 효율의 박막형 전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제입니다. 저는 동진세미켐이 이 분야에서 대박을 터트려서 세계적인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